

WE WHO FEEL DIFFERENTLY

INTERVIEWS

연애문제는 맞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개인적으로 연애하는 방식 뿐만 아니라 어떻게 세상과 호흡하고 손잡고, 어떻게 세상을 포용하는지에 대한, 세상과의 연애 방식이기도 해요.

징키와의 인터뷰

2010년 5월 30일
경복궁, 대한민국 서울

Jinki: 저는 징키라고 하고, 21살입니다. 편의상 레즈비언이라고는 말하지만, 저한테 맞는 단어를 찾아가고 있어요. 4년 전에 청소년 성소수자를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어요.

Carlos Motta: 레즈비언이라는 분류가 본인의 정체성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나요?

J: 여성을 좋한다는 것과 내가 여성이라는 것을 과연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어요. 제가 트랜스젠더라는 건 아니에요. 신체적으로 여성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여성을 아주 사랑한다는 점도 인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말하는 여성 개념에 속박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나 자신과 내가 사랑하는 존재들을 어떻게 규정지어야 할지, 더 적절한 단어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CM: 말씀하신 단체에서는 이런 사안을 어떻게 다루나요?

J: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해 먼저 말해야 할 것 같네요. 서울에조차도 아직 청소년 성소수자가 모일만한 곳이 별로 없고, 지역에는 아예 서로를 접할 기회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청소년 성소수자의 문화나 활동이 만들어질 기반이 거의 없다시피 했죠. 기존에 있는 커뮤니티들은 거의 만남과 교제를 위주로 한 것이었고요. 제 정체성을 깨달은 뒤, 이런 커뮤니티들만으로는 제 고민을 풀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CM: 그럼 단체에서 하는 일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J: 제가 필요했던 것은 단지 누군가가 "그래 넌 너 그대로도 괜찮아"라고 말해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위안을 주는 곳이 없었고, 그래서 직접 라틴을 만들게 됐죠. 라틴에는 기존의 커뮤니티들과 다른 점이 3가지 있어요. 첫째는 모든 행사의 기획과 진행을 청소년의 힘으로 해결한다는 것, 둘째는 레즈비언이든 게이든 트랜스젠더든, 정체성에 상관없이 같이 모인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청소년 성소수자가 고민을 공유할 수 있고, 더 다양한 우리의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쉼터가 되고자 한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라틴의 특징이자 목표죠.

WE WHO FEEL DIFFERENTLY INTERVIEWS

CM: 온라인에서만 활동하나요?

J: 아니요, 오프라인에서도 만나죠. 우선은 매달 성소수자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과 이 사회를 공부하는 스터디 모임을 매달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년 8월 15일마다 이반 놀이터라는 행사를 해요. 이반놀이터는 매번 100명 이상이 모여서 퀴어영화를 상영하기도 하고, 열린상담소를 열기도 하고, 강의나 행사도 해요. 친목도 다지고 서로 정보도 교환하죠.

CM: 활동 자금은 어떻게 조달하나요?

J: 기본운영금은 각자 쌈짓돈을 모아서 유지하죠. 스터디 모임 같은 경우는 일절 돈을 안 받고, 장소를 무료로 대여해주는 곳들을 찾아 진행해요. 행사는 장소대여비가 없어도 한 60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참여비를 1000원, 2000원 정도를 받고요. 가끔 받는 후원비를 모아서 보태고, 다른 성소수자 단체들의 지원을 조금씩 받아요.

CM: 정부나 지역기관에서 경제적 지원을 해주지는 않나요?

J: 정부에서는 동성애 자체를 어떤 청소년에 유해한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절대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CM: 이런 활동을 하는 데에 좌우명 같은 것이 있나요? 이전에 비슷한 활동을 한 한국 단체가 있었나요, 아니면 새로이 만들어가고 있는 건가요?

J: 제가 알기로는 이런 시도를 한 청소년 커뮤니티는 없어요. 여러 성인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보면서, "모임도 가고, 얘기도 나누고, 재밌게 노네! 나도 그러고 싶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만든 것은 아주 일부일 뿐이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 조각보처럼 엮어나가서 지금의 라틴이 된 거죠.

CM: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배경이 있나요? 젠더 이론이나 퀴어 이론, 아니면 다른 개념적이고 이론적인 공간의 영향을 받은 것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J: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제 정체성을 깨닫기 전에는 호모포비아였어요. 그래서 처음 커뮤니티를 만들 때 어떤 이론에 영향을 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죠. 오히려 활동을 하면서 이론들을 배워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CM: 라틴의 활동을 어떤 정치적인 것으로 생각하나요, 아니면 커뮤니티 복지 활동으로 생각하나요?

J: 커뮤니티적 성격이죠.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치적인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내 존재나 정체성이 정치적인 상황에 상관없이 존재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번에 차별금지법이나 청소년보호법 등에 대해 알게 되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WE WHO FEEL DIFFERENTLY INTERVIEWS

CM: 라틴의 미래는 어땠으면 좋겠나요? 하나의 단체로서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후 라틴의 행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J: 제가 라틴의 방향을 제시해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라틴 안의 친구들이 다 같이 만들어가는 문화에 따라 정해지는 거니까요. 제가 원하는 것은 다양한 청소년 성소수자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라틴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라틴과 다른 성격의 모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니까요.

CM: 이런 독창적인 활동이 한국 사회에서 수용될 수 있는 역사적 배경이 있을까요? 이런 이슈들에 대해 발언하고 행동하고자 하는 커뮤니티가 오늘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J: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인터넷의 발달이 큰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인터넷이 없었다면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모든 지역의 사람과 만나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자신의 정체성을 당당하게 표현하는 사람들과 접촉할 기회도 많아졌죠. 그러면서 자신감을 갖는 사람들이 한 사람씩 늘어났고요. 인식의 변화가 명확히 보이지는 않지만, 날마다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 라틴을 만들었을 때보다, 아주 조금이지만 이 세상이, 적어도 이 세상 속 나의 세계만큼은 조금 더 따뜻해졌다고 느껴요. 이렇게 조금씩, 한 사람씩 더 따뜻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CM: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늘날 한국 사회가 변화하고 있는 것은 본인의 세대가 이전에 말해지지 못했던 것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군요. 실제로 본인의 커뮤니티를 변화시키고 있고요.

J: 네, 최소한 제가 변화했고, 제가 제 커뮤니티를 변화시켰고, 그리고 제 커뮤니티가 또 다른 커뮤니티도 변화시키겠죠.

CM: 전통과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관계 맺고 있나요? 가족적 가치나 종교에 대한 충실함처럼 한국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이 모든 것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나요?

J: 저는 가족들에게 커밍아웃했어요. 이제 어머니는, 적어도 제 앞에서는, 성소수자를 흥미거리로 삼는 방송을 봐도 호모포비아적 발언을 하시지는 않아요. 더 이상 결혼을 요구하시지도 않고요. 아직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못했지만, 그런 말들이 나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는 거죠.

CM: 본인 같은 경우가 라틴 사람들에게 흔히 있는 경우인가요? 이들과 가족이나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커밍아웃하고 있나요?

J: 다른 청소년 커뮤니티에 비해서 라틴의 커밍아웃 비율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어떻게 커밍아웃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덜 충격을 주면서 내 표현을 더 명확히 할 수 있는가를 함께 배우

WE WHO FEEL DIFFERENTLY INTERVIEWS

죠. 커밍아웃을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된다거나, 인생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라틴에 와서 많이 생각을 바꿔요. "부모님께 당당해질 수 있는 방법을 배웠고 부모님이 나를 인정해주셨다, 라틴 너무 고맙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소수자의 가족이나 친구들도 라틴에 가입해서 정보를 얻어가기도 하죠.

CM: 가정이나 학교에서 청소년들 사이에 벌어지는 폭력이나 차별은 어떤가요?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나요? 라틴 회원 중에 다른 학생들에게 받는 폭력에 대해 상담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J: 아직도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폭력은 너무도 당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신촌 공원에 가면 커밍아웃해서 집에서 쫓겨나온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친구들이 생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성소수자에게 몸을 파는 등의 것밖에 없죠. 학교에서도 이반검열이라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설문지를 돌려서 누가 레즈비언인지 적어내라고 하기도 하고, 머리카락 모양만을 보고 이반이라고 판단해서 정학을 주기도 하고, 학생의 동의도 없이 부모님에게 아우팅을 시키기도 하죠. 이런 일들을 굉장히 비일비재해요. 남자고등학교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욕이 "호모새끼"죠. 성소수자라는 게 알려져서 폭행이나 성폭행을 당하기도 하고요. 뉴스에서 성적 비관으로 학생이 자살했다고 보도하는 경우 중 정말 많은 비율이 성적 정체성에 따른 자살이에요.

CM: 이런 자살에 대해 기관들은 어떻게 대응하나요? 성적 지향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수 있겠고, 사회 문제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텐데요. 공적인 차원에서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나요?

J: 대부분은 부모가 원치 않아서 성적 정체성을 공개하지 않아요. 6년 전에 육우당이라는 친구가 자살을 한 적이 있었는데, 유서에 "나는 죽어서 내 이름과 내가 게이라는 것을 당당히 밝히고 싶다"고 썼죠. 그 친구가 속했던 성소수자 단체에서는 매년 추모식을 열고 있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반대를 하셔서, 결국 아직까지도 이름을 밝히지 못하고 육우당이라는 닉네임으로 불리죠.

CM: 새로운 발언에 대해 이렇게 폐쇄적이고 부정적인 상황에서 활동하는 젊은이로서 어떤 기분인가요? 이런 장벽이 무너질 수 있을까요?

J: 장벽들이 있다면 분명 한꺼번에 와장창 무너질 수 없다고 생각해요. 스톤월 항쟁도 큰 사건이었지만 그 뒤로 많은 것이 변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래도 적어도 4년 전과 지금이 다르다는 것을 보면, 조금씩 바뀌어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죠.

CM: 미래에, 가령 15년 뒤에 스스로가 어떤 모습이길 바라나요? 이후에 활동가가 될 건가요? 물론 지금도 활동가이지만요.

J: 저는 제 자신을 활동가라고 잘 표현하지 않아요. 제가 하는 일들은 사회를 위한 것이기도

WE WHO FEEL DIFFERENTLY INTERVIEWS

하지만 일차적으로는 나의 욕구와 만족을 위해서예요. 제가 이 일 자체를 너무 즐기고,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의 감동이었죠. 만약 저 자신을 활동가라고 칭하면 제 존재나 삶도 그냥 활동 중 하나로 환원될 것 같아요.

CM: 인터뷰 초반에 이야기했던 정체성 분류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본인이 속한 단체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런 분류가 변화하고 있나요? 스스로를 게이나 레즈비언으로 칭하기 보다는 이런 구분들을 없애려는 경향이 있나요?

J: 아직까지 청소년 커뮤니티에서는 게이방, 레즈비언방을 나눠서 노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라틴에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잘 모르겠다고 하면 대부분이 "너는 그냥 너다, 굳이 정체화할 필요는 없다"고 이야기해요. 저와 마찬가지로 언어가 나 자신을 따라오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CM: 매우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LGBT 운동이 왕성한 나라들에서는 이런 분류들이 정치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하지만 한국에는, 아마 그런 운동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J: 그렇다기보다는 주로 젊은 친구들, 청소년들이 그런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기존 성인 커뮤니티에서는 여전히 트랜스젠더나 바이섹슈얼, BDSM 취향을 가진 성소수자들을 배척하고 폭력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많죠. 엠투에프 성전환자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레즈비언 커뮤니티도 있고요. 그 틈바구니 속에서 라틴만 이런 분위기를 갖고 있다는 게 놀라운 것 같아요.

CM: 성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다양한 성적 행위에 대해 서슴없이 이야기하나요? 커뮤니티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나요?

J: 청소년들에게는 성교육, 피임교육을 제대로 해주는 곳도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라틴에서 이런 정보를 제공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성소수자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어떻게 성관계를 갖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여태까지 이성간의 성관계에 대한 정보만을 전해들었기 때문에 자기들도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라틴에서는 그런 정보들을 더 개방하면서 안전한 섹스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CM: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나요? 제가 묻지 않은 거나, 미처 말하지 못한 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나.

J: 예전에 친한 친구에게 커밍아웃을 했는데, 그 친구가 "알겠어, 근데 그건 연애문제 아니야? 그게 왜 네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더라고요. 그 얘기 때문에 잠시 고민을 했죠. 하지만 내가 연애를 하는 중이든 아니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아니든, 나의 성적 지향을 변하지 않고, 그 자체로 나는 사회에서 거부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연애문제는 맞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개인적으로 연애하는 방

WE WHO FEEL DIFFERENTLY

INTERVIEWS

식뿐만 아니라 어떻게 세상과 호흡하고 손잡고, 어떻게 세상을 포용하는지에 대한, 세상과의 연애 방식이기도 하다고요. 여전히 성소수자는 집을 얻기도 힘들고, 회사나 사회에서 받아들여지기도 힘들죠.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서 수술을 받을 때 보호자 자격을 얻을 수도 없어요. 이런 게 어떻게 연애문제에만 국한될 수 있겠어요. 그냥 내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고 세상과 연애하는 방식인 거예요.